



방사청-경북도-구미시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

국방 5대 신산업인
유무인복합체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이철우 도지사
“방산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중심지로 성장”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클러스터사업 사업단 및 지역협의체 구성 ▲유무인복합

체계분야 특화 이행안(로드맵) 수립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 및 운영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등 기반(인프라) 지원 ▲국방신산업관련 기술개발 및 성과를 사업화 지원 ▲국방 창업 및 우수 민수기업 방산진입 지원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방산 혁신클러스터사업은 방산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5년간 총 499억원(국비 245억 원, 지방비 254억 원)을 투입해 유무인복합체계 중심의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먼저 구미1국가산업단지에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3개동, 4,000㎡)를 '24년까지 구축하고, 환경/신뢰성 장비, 전자기적합성 장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유무인복합체계 기반 지역 특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특화로드맵 전략 수립과 경북 방위산업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기업과 대학 등의 협력체(컨소시엄)로 구성된 개방형 프로젝트 형태의 방산특화연구소를 운영해 유무인복합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 무기체계에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을 생산해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형태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소형무인자폭로봇, 소형정찰로봇, 특수목적 드론 등 첨단소형무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도 방산 완제품의 생산과 군 전력화,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첨단소형무기체계 기술과제 개발,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지원,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화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과 국방창업 및 우수민수기업의 방산진입을 위한 컨설팅 등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와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과 연계해 방산 중소기업 설비와 금형의 고도화를 지원해 주는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별도

윤석열대통령, 동티모르 대통령 면담..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6. 2일 '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 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군(UN PKO) 자격으로 상륙수 부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개발, 노동, 교육,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내실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현재 동티모르 전역에서 우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보건·의료, 교육·훈련, 환경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좀더 지원을 확대할 것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 경험과 혁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면서,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ASEAN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동티모르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더 많은 동티모르의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게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책임외교 비전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지역·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동티모르는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포함해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관 선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5. 31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를 강조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제주포럼을 포함해 각종 국제기구 및 다자포럼 계기에 북한 정권의 행태를 단호히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광수기자

봉화군가족센터,경기도 김동연, “나에게는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는 꿈”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방법,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싱크탱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위촉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고, 북부는 북부의 특성에 맞게 남부는 남부의 특성에 맞

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며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문화상 전국회의장, 강성중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장) 등 11명으로 위촉·출범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추가 위촉으로 총 25명이 활동하게 됐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경과와 계획, 비전발전전략수립 용역 추진 상황, 도민참여형 속의 공론조사 경과 등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할 예정이며, 본인 전문 분야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홍보에도 적극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제언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만식기자



버스공영제
시민의 이동권 보장

스마트산업단지
반도체·미래차 유치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공기업

함백산추모공원
시민 복지 향상

주차전용건축물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

HU 화성도시공사
Hwasong Urban Corporation

“대피하시기 바랍니다”가 끝? 시민 불안 키운 재난문자 손 본다

현행 조례, ‘신속히 전파’ 규정만... 어떤 내용 포함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아

서울시가 지난 5월 31일 새벽 발생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에 기본적인 재난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시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은 5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조례 개정안에는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장소 등을 재난문자에 포

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영철 의원은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5월 31일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사이렌까지 울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정작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 등 주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광수기자



윤승오 교육위원장,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윤승오 위원장, “학생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도움되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은 지난 2일, 경찰청 주관의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태형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윤 위원장은 캠페인 문구가 든 패널을 들고 ‘마약의 시작은 곧 삶의 끝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 학생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진행중이며, 최근 마약 사건이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 확산됨에 따라 전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려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 위원장과 주원영 영천교육장을 지목하며, “이번 캠페인이 학생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성공 다짐

들녘특구 지정 현판 수여, 특구별 공동영농 모델 제시
 지속발전 가능한 선도 경영체로 농업분야 지방시대 주도
 이철우 도지사, “농업대전환이 모범 사례가 돼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농촌”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일, 구미 도개면 샘물영농조합법인에서 도·시군 관계관과 들녘특구 참여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성공 다짐 결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식은 들녘특구 공동체들이 지속발전 가능한 선도 경영체로 성장해 농업분야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사업 성공 의지를

함께 다지는 자리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의 규모화와 융복합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들녘특구 TF팀 신설을 시작으로 들녘특구 예산 확보,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 기술자문단 구성 등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해 지난달포항·경주 식량작물 특구,

구미 밀밸리 특구, 울진 경곡순환 특구 등 4개의 들녘특구를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들녘특구 대표들이 직접 특구별 추진현황과 특화된 공동영농 모델을 소개했으며 특구 지정을 알리는 현판이 수여됐으며, 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배 확대가 필요한 우리 밀과 가루쌀로 만든 빵, 쿠키, 맥주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소개하

고 시식·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령화, 기후변화 등 성장 동력을 상실한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경북농업대전환 공동체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농업의 틀을 확 바꿀 것이다”라며, “농업대전환이 모범 사례가 돼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한강의 무한한 가치 확인한 ‘그레이트 한강 정책답사’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당·정간 협조 이어갈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그레이트 한강 정책답사’ 진행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5월 31일 교섭단체 주관으로 그레이트 한강 정책답사를 진행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서울시가 글로벌 매력 도시 서울을 건인을 목표로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서울시 13개 실·본부·국에 사업이 걸쳐 있으며 시의회 관련 상임위는 7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이 이번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 추경안에만 한강 접근성 개선에 25억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추진에 10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에 13억원, 한강 수상레저 리그 개최 2억원이 상정되어 있는 데다 하반기 상정될 본예산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사업인 만큼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주요 시설과 현장을 찾아보는 정책답사를 기획하고 한강으로 직접 나선 것이다.

일정에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방어백골부대전적비’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미동맹 70주년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준비된 행사로 백골부대는 6.25전쟁 당시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영등포 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도강을 지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참배는 헌화와 묵념 그리고 추념사를 울리며 호국영령의 투혼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진행됐다.

답사에는 김현기 의장과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 56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한강사업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미래공간기획관 등이 사업계획과 기본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는 관공선 승선과 함께 안전수칙 안내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여의도에서 압구정까지 시 관련 부서의 사업설명을 들으며 주요 거점을 눈으로 확인했고, 현장에서 시 담당국과장들은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도시계획국의 종합계획, 미래공간기획관의 서울링, 한강사업본부장의 서해벉길 및 서울항 조성계획 순으로 사업설명이 이어졌고, 미래공간기획관의 노들 예술섬 현장 설명을 거쳐, 다시 도시계획국의 압구정 보행교 현장소개로 마무리됐다.

의원들은 한강에 항만시설과 수상 산책로·보행교 등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먼저, 한강이 가진 가능성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데 공감했다. 지역별 이용 편차의 문제, 주택 일변도인 수변 경관의 다양화 등에 의견을 더했다.

또 서울시가 구상하는 서울링, 서울항, 노들예술섬 등 글로벌 수상관광의 핵심사업 실현을 위해

서는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당면 과제들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시민들의 우려가 없게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총 90분 동안 그레이트 한강 4대 전략인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의 55개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의 진지한 논의와 질문이 이어졌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시 주요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시의원의 책무이자, 여당 의원이

가져야 할 협력적 자세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살피고 또, 정책 전문성을 키우도록 이번 답사를 준비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또, “한강 수변의 가치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시민이 원하는 한강이 무엇인지를 듣고 확인하는 자리도 기획할 예정이다. 한강 개발의 수혜는 결국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1호점 준공, 현판식 가져

「GBDC이웃사랑사다리」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 지원
5개 분야 수혜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펼쳐
이재혁 사장, "도내 주거복지 증진/주거안정 위해 2·3호점 계속" 추진

경상북도개발공사의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1호점(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이 지난 30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THE 행복한 GBDC 하우스'는 도내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비용을 지원한 사회공헌 사업

으로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도 사업에 함께 참여해 한층더 의미를 더했다. 상주시 낙동면에서도 주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앞장섰으며, 노후주택 철거 및 환경정화 작업에는 공사 직원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공사는 2021년부터 사회공헌사업 브랜드 'GBDC 사다리'를 선포하고 하우리 봉사단을 발족해 5개 분야 수혜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재혁 사장은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1호점의 준공은 우리 공사에도 의미가 크다"며 "도내 주거복지 증진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 2호점·3호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DPFC 윤리헌장 선포식 개최

전 임직원의 의견수렴과 노사 협의를 거쳐 'DPFC 윤리헌장' 제정
신임직원 대표 2명 윤리헌장 낭독 및 청렴 굿즈 전달
문기봉 이사장, "시민에게 신뢰받는 모범적 윤리경영 선도기관 도약을 위해 총력"

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입직원 대표 2명이 낭독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일(목), 대명동 본사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DPFC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합 공단의 윤리규범체계를 고도화하고 부패취



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시민 행복 도시 대구'를 구현하기 위한 전 임직원의 행동기준과 실천의지를 담은 윤리헌장을 선포하는 자리로, 이날 공단에서 공직

새롭게 제정된 DPFC 윤리헌장은 전 임직원의 의견수렴과 노사 협의를 거쳐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윤리·준법경영 체계 확립 ▶불법행위 척결 및 이해충돌 방

지 ▶고객 감동경영 실현 ▶공정거래 철차 준수 ▶공정한 평가와 보상 ▶친환경 경영 선도 및 나눔경영 실천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공단에서는 윤리헌장 선포와 더불어 신입직원들에게 CEO 청렴 메시지 카드와 함께 청렴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청렴 굿즈'를 전달해 청렴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마인드를 강조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통합과 혁신의 바탕이 되는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 간판개선사업 설명회 개최



의성군은 지난 30일, 의성읍 도동리 일원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판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8천 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노후간판을 철거하고 사업대상지 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고려한 간판을 디자인

인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협의체, 간판개선사업 대상 건물주 및 간판개선사업 대상 업소주,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간판디자인안 발표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각 업소별 디자인 협의를 거

쳐 디자인 설계를 완료한 뒤, 오는 12월까지 간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협의 시스템을 통해 건물주·업소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감 있는 운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양 부림동·단양 어상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협약

지역특산물 직거래 및 축제,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교류사업 기대

안양시 부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단양군 어상천면사무소에서 부림동과 어상천면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호교류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1기 신도시 평촌에 위치한 부림동은 대부분의 지역이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구성된 도심 지역이며, 인구는 2만6천여명에 달한다. 반면 어상천면은 천여명의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덕분에 당도 높은 꿀수박으로 유명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측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림동 한윤희 주민자치위원장과 어상천면 김찬수 주민자치협의회장이 각각 우호 교류 협약서에 서명했

다. 이명아 부림동장과 한윤희 위원장은 어상천면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차후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말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양 기관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축제를 비롯한 지역행사 상호 참여, 지역특산물 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 다



이중하 어상천면장과 김찬수 협의회장은 "협약식을 위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방면으로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어상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림동을 답방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갛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영등포구, 불법 현수막 그만... 친환경 디지털 전자게시대 시대 연다

하반기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 3곳에 설치...13일까지 업체 공모

영등포구가 불법 현수막 방지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자게시대 설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자게시대는 LED 전광판을 활용한 전자 현수막으로 스마트에코시티를 지향하는 구의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선명한 화질과 영상 효과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태풍으로 찢어지거나 날리는 것을 방지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전자게시대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 받아 예산을 절감하고, 업체는 전자게시대를 5년

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비롯한 운영수익을 거둘 수 있다.

구는 13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공고를 실시하고, 6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빛 공해,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까지 상업지역이나 지하철역 등 변화가 3곳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자게시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일반광고(80%)와 긴급 재난 시 국민 행동 요령, 기상 특보, 구정 홍보 등 공익광고(20%)를 송출한다. 구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폭넓은 홍보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전자게시대를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행동요령 전파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홍보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광진구, 생생한 교육 소통 '광진미래교육 원탁토론회' 개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발전방안 모색

광진구가 2일,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는 '2023 광진미래교육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원탁토론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다. 교육 분야에 속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건국대학교 사범대학이 공동 주관했다. 올해는 교육계 화두로 떠오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주제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먼저 1부에서는 광진미래교육 지구에 대한 소개에 이어, 특별강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

해 내다보는 학교의 미래'가 진행됐다. 건국대 교직과 김종훈 교수가 7년 만에 바뀐 교육과정의 교과별 주요 변화 내용을 알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2부 토론 시간에는 초·중·고 교육별로 구성된 12개 모둠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 사범대학 학부생들이 전문 도우미(퍼실리테이터)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참여자들은 "예전보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돌러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라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의견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교육사업의 내실을 다진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교육현장 일선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광진미래교육지구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미래교육지구에서는 문·예·체 마을강사 지원, 지역연계 교육과정, 마을학교, 미래사회 직업체험, 광진 대학생 멘토단, 토요역사기행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성원/기자



인천 4,500여 이·통장 5년 만에 화합 한마당

인천시 이·통장연합회, 제7회 한마음대회 개최



이날 한마음 대회에는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및 10개 군·구 단체장, 각종 단체 등이 참석해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요 공식 행사로 이·통장연합회를 적극 지원한 NH농협은행 인천본부에 인천시장 감사패 수여, 이·통장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주요 내빈들과 이·통장들의 인천시 '비전담 세우기' 경기를 비롯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및 해사·고등법원 인천 유치물 지지하는 퍼포먼스 등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명랑운

동회,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4,500여 명이 즐기는 화합의 시간을 보내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통장 연합회 박영택 회장은 대회를 통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한뜻으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대응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5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한마음대회로 4,500여 이·통장님들께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는 6월 5일 개청을 앞둔 재외동포청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통장연합회 박영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5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대회에 그간의 수고로움을 모두 잊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서초 청년 자산관리 꿀팁 알려드려요...재테크 고민 해결!

구, 19~39세 서초구 청년 100명 월급관리 △청년 맞춤 투자상품 등 맞춤형 경제교육 제공

서울 서초구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청년 재테크 고민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월급관리, 내집마련 등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서초청년 경제특강'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다.

구는 이달부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정해 총 3회 경제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 일정은 1회차는 오는 23일, 2회차는 내달 7일 서초유스센터에서

진행되며, 3회차는 9월 중 예정이다.

특히 1·2회차 특강에서는 54만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 유튜버 '박곰희'가 강사로 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속시원히 알려줄 예정이다.

강의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의 구글폼 링크로 접속하면 된

다. 이외에도 구는 내달 청년 대상 맞춤형 1:1 재무상담을 실시하여 개인 재정상황에 맞는 자산관리법 코칭 등을 통해 서초청년들의 경제 자립을 든든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청년을 위한 맞춤형 경제특강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현명한 재테크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송파구 MZ세대 통장들, 지역에 활력 더한다!

송파구, '청년정책사업 추진계획' 수립·19억 원 투입...청년 구정 참여 늘린다!

젊은 도시 송파구에 MZ세대 통장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민공은 문정동과 방이동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이다. 두 곳 모두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일자리와 음식점이 밀집해 있고, 편리한 교통까지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문정2동은 청년(20세~39세)층 인구가 11,966명으로 송파구 27개동 중 1위이며, 방이2동은 11,368명으로 3위이다.

문정2동 21동 김기표 통장은 30세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4년 차 통장이다. 1인 가구로 직장에 다니는 바쁜 일과 중에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올해 초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비둘기 통장'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늘어나는 비둘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구청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했기 때문이

다. 김 통장의 건의 덕분에 '비둘기 먹이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

방이동에는 만 25세의 최연소 통장이 위촉됐다. 지난 3월부터 방이2동 2동에서 활동하는 서혜린 통장이다. 송파구 전체 744명의 통장 중에서 가장 어리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방이동에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싶어 통장에 도전하게 됐다.

서 통장은 1인 가구가 1만여 세대나 되는 지역 특성을 살려 2030세대가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정 활동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젊은 도시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청년인구(청년기본법, 만19세~34세)는 147,472명으로 관악구에 이어 2위이다. 평균연령도 42.6세로 서울시 평균 44세 보다 1.4세

가 어리다. 이에 구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2023년 송파구 청년정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송파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아카데미 운영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실시 ▲송파 청년축제 개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청년들은 중·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이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송파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관악구, 중국 자매도시 호화호특시 청소년 홈스테이 참여자 모집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청소년 홈스테이 재개

관악구가 한·중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해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호화호특시 홈스테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지난 2012년 중국 내몽고 호화호특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대표단을 상호 파견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고 체험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이어왔다.

이번 홈스테이는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3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 6일간 호화호특시에서 중국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 현지 가정생활 체험, 주요 명소 견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심사를 거쳐 8명(일반가정



4명, 사회적배려대상가정 4명)을 선발하고 왕복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 체제비 등 연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홈스테이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앤소식>공고>고시공고)를 확인한 후 오는 9일까지 행정지원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

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홈스테이 사업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과 소양을 갖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신청 접수부터 조사, 지원까지 한번에

들녘특구 지정 현판 수여, 특구별 공동영농 모델 제시

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천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시행되는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강동 전세 피해자 ▲이중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최만식기자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 석남3동서 현장 간담회



인천 서구는 지난 1일 강범석 구청장이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인 석남3동을 찾아 지역주민, 석남3동 주민자치회, 사업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남3동은 지난달 3일 석남3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영화) 주민제안서 접수로 시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 공모, 재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3년간 최대 33억 원을 지원해 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 노후 주택 집수리·빈

집 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 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대선 공모 선정에 대한 노고 격려와 사업대상지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의견을 제시했다. 강범석 청장 역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의견을 나눴다.

강 청장은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이에 따른 공동 의견을 정리해 확실하게 구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서구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성남시, 백현마이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정성·평가 절차 문제 없어

성남도개공, 지난달 30일 평가위원 명단·평가표·의견서 홈페이지 공개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컨소시엄 선정 관련하여 일부에서 평가위원 사전 유출 등 공정성과 평가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자 즉각 감사실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 부서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메리츠증권컨소시엄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절차 등을 파악했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신 시장은 이미 지난해 9월, 도시개발공사에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부서가 포함된 TF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 정직한 사업추진 방침을 지시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26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을 발표한 후, 30일엔 평가위원 17명 명단과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 평가위원별 평가표 및 의견서를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앞서 도시개발공사는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투명한 평가 절차 이행을 위해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앞으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도시개발공사에 지침을 내렸다.

신상진 시장은 지금까지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수사 의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의정부시, 군마근린공원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녹양지구 '군마근린공원'에 대한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9억3천800만 원(도비 2억8천100만

원, 시비 6억5천700만 원)을 들여 추진한다.

녹양동 406-3번지 일원에 있는 군마근린공원은 2009년 조성된 도시공원이다. 경원선, 국도 3호선 및 아파트가 맞닿아 있고 각종 시설 노후화로 정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레인가든, 안개정원, 잔디광장, 모험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한다. 특히, 생태적 기능 복원과 함께 경관성과 활용도를 높여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시숲 리모델링은 회색 구조물로 채워져 있는 도심 속 공원에 소음감소, 공기정화, 심리적 안정감 등 보전휴양 기능과 도시 생태계를 보전하는 기능을 함께 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름 한 낮의 평균기온을 낮추고, 평균습도를 높여 도시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김정일 공원과장은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으로 뾰뾰하게 채워져 있는 도심 속 회색 구조물을 비우는 데 속도를 내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공원을 만들 것"이라며, "남녀노소 즐겨 찾을 수 있는 복합적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남양주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개최

남양주시는 2일 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순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종림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장, 기부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후원금 및 기부자 현황 보고, 명예의 전당 안내, 축하 공연, 제막 퍼포먼스, 기부 시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지역 사회에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로 11m, 세로 3m 규모의 디지털 월로 구성된 기부자들의 현역판과 사진, 기부 철학, 기부 내역, 현장 기부, 기부자 검색, 포토존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명예의 전당에서는 1억 원 이상 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나눔명문기업, 평온한 기부 등 고액 기부자를 포함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960여 명의 소액 기부 천사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와 연계해 명예의 전당을 기부 체험 및 나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키오스크 및 테크형 단말기가 함께 설치돼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용 카드 또는 각종 페이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정액 기부(1,000원)와 자율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모든 시 작은 위대하다'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또는 부모 찬스 없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 기부뿐만 아니라 소액 기부, 시민의 자원봉사 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나눔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라며 "시민들이 기부해 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에 소중히 잘 사용해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고액 기부자는 아너 소사이어티 20명, 나눔명문기업 3개소, 평온한 기부 16명 등 총 39명이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고액 기부자의 72%에 해당하는 28명이 고액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 구현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최만식기자



구리시, 제7회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기관 선정

탄소중립·자원순환·녹색성장·물관리·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조성 선도

구리시는 1일 제28회 환경의 날』을 맞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제7회 '경기도 환경대상' 기관단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모별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환경교육, 자연생태, 기후대기, 환경안전, 환경산업, 자원순환, 물 관리 등 7개 분야의 정량평가와 시군 특화사업 지표 분야의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선정하는 것으로, 구리시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리시는 시군 특화사업 지표 분야에서 ▲구리하수처리시설 2050 탄소중립 실현(탄소중립분야) ▲자원순환교육센터 설치(자원순환분야) ▲시립양묘장 운영 및 시민정원사 양성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녹색성장분야)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물관리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

렸다. 아울러, 5월 2023년 경기도 주관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는 등 명실상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현재 구리시가 지속가능한 구리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자원순환, 녹색성장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이번 제7회 경기도 환경대상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라며,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온 것은 구리시 공직자들의 헌신과 함께 동참해주신 시민들 덕분이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리시민과 함께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지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2일 어린이와 함께하는 '환경의 날' 행사

어린이·초등생 250여명 그림그리기 대회...하천변 '에코 플로깅'도



용인특례시가 2일 동백호수공원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보호 실천 생활화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올해로 28번째

를 맞았다. 이날 행사는 특별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했다. 행사에는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지구가 지금 SOS를 치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자연생태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이렇게 어린이와 함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멋진 행사에 참여해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어린이를 위해 어른들이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용인시청 전구를 절반만 켜냈다. 시장실 등등은 16개를 줄였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힘을 모으면 기후변화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환경사랑 그림그리기대회'가 관내 어린이·초등학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백호수공원~구갈레스피아 구간을 걸으면서 하천을 정화하는 '에코 플로깅 및 EM흙공 날리기'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0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약속 ▲환경보드게임 ▲용인 자원순환가게 안내(종이팩,건전지 교환행사 진행) ▲친환경 수소 자동차 전시 ▲친환경제 등 친환경 물품 전시 등을 진행했다.

EM흙공은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EM발효액을 황토와 섞어 만든 공 모양으로 하천에 던지면 유해물질을 분해하여 악취 제거 및 수질 개선 등 정화 작용을 하는 재료다.

최만식기자

이천시, 노담(NO 담배) 캠페인 '담배꽂초 싹쓰리 플로깅' 실시

이천시는 이천시청소년재단과 함께 5월 31일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서 노담(NO 담배) 캠페인 '담배꽂초 싹쓰리 플로깅'을 실시했다.

'담배꽂초 싹쓰리 플로깅'은 담배 없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걷거나 뛰며 거리의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줍고 금연의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는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추진했으며, 금연의 날 주제인 '담배가 아닌 건강한 식량을 키워주세요(Grow Food Not Tobacco)'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캠페인은 이천시보건소와 이천시청소년재단 직원과 청소년 등

6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는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서 집결하여 2개조로 나뉘어, 1조는 중앙통~관고시장 일대 2조는 중앙통~터미널역자갈목까지 플로깅을 했다.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차 없는 거리 위주로 동선을 정했다. 플로깅은 2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참여자에게는 2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이 주어진다.

캠페인에 참가자들은 "캠페인을 하면서 거리에 담배꽂초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고, 거리의 시민들이 '절대 담배를 피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며 우리의 활동이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건강증진 플로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천시민의 건강실천과 금연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

이성윤기자



수원시 모든 공직자, '적극행정, 규제개혁 실천' 다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비롯한 모든 공직자·협업기관 직원, '적극행정, 규제개혁 앞장서겠다' 다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6월의 만남' 후 '적극행정,

규제개혁 실천 다짐 행사'를 진행했다.

이재준 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나를 바꾸는 힘 적극행정', '우리를 바꾸는 힘 규제개혁'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다른 공직자들은 사무실에서 회의 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이날까지 6회에 걸쳐 '적극행정 실천다짐 행사'를 열며,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마인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적극행정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양주시,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다양한 행사 개최

구강보건 교육 및 체험, 어린이 손인형극 등 6월 한달 간 진행

양주시 구강보건센터에서는 9일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6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5일과 8일에는 노인대학, 군부대를 방문해 구강보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르신에게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구강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어 자연치아와 의치관리, 구강검진 및 상담, 전문가 불소도포 등을 진행하고 군민에게는 구취관리,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교육, 구강건강관리 질문, OX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7일에는 구강보건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칫솔 세균 측정용 하여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과 잇솔질 교육, 불소 이 용을 통해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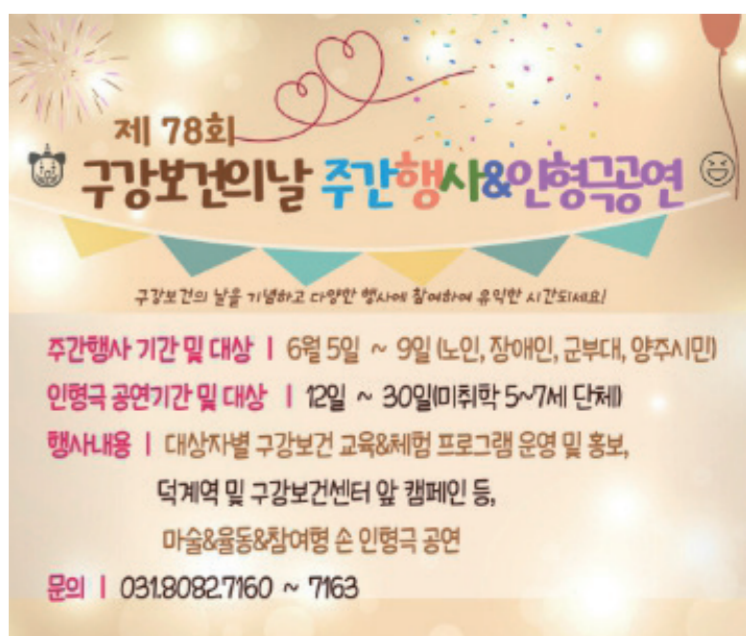
또한 센터는 9일 금요일 오전에는 덕계역, 오후에는 덕계동 구강보건센터 앞에서 시민을 대상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는 관내 미취학 아동 5~7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3층 구강보건체험실에서 구강보건 손인형극 공연을 운영한다.

이번 공연은 구강보건 위생용품 전시와 풍선아트, 마술, 율동, 참여형 손인형극 공연이 새롭게 선보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신청 후 기선정된 대상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한산란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 사랑의 계란 기증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3천만원 상당의 계란 5,000판 기증
이철우 도지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러한 나눔 실천의 마음이 널리 전파되길"

경북도는 지난 1일, 대한산란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3천만원 상당의 계란 5,000판을 기증하는 '사랑의 계란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경북도지회장과 정동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증한 계란은 6월 초 7개 시군(경주, 김천, 영주, 군위, 의성, 성주, 칠곡)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내 산란계 농가들은 지난해 울진산불 피해지역에 구운 계란 2만개를 후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계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손훈진 대한산란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은 "산란계 농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계란을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계란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산란계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러한 나눔 실천의 마음이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박형준 시장, 쿠바상공회의소 회장 등 만나 쿠바와의 실질 협력방안 논의

서울국제식품전 참석 계기 방한 쿠바상공회의소 회장, 부산 초청



부산시는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안토니오 루이스 가리카르테 코로나(Antonio Luis Carricarte Corona) 쿠바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오늘(2일) 부산으로 초청해 쿠바와의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쿠바는 미수교국임에도 지난 2005년 쿠바 수도 아바나에 우리 무역관을, 지난 2022년 8월에

는 한국문화센터와 한글학교를 개설하는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다. 이날 부산을 방문하는 안토니오 루이스 가리카르테 코로나 회장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쿠바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이후 대외 무역부(MINCEX) 차관, 대외무역부(MINCEX) 제1차관으로 근무했

며, 지난 2020년 쿠바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다시 임명됐다.

이번에 쿠바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방한해 참석한 2023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코트라(KOTRA) 주최로 개최됐으며, 전 세계 39개국 1,316곳의 국내·외 식품업체 기업이 참여해 세계 식품산업의 유행과 혁신 정보를 공유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방한한 쿠바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산으로 초청한 것이며 ▲ 박형준 시장 주재 환영오찬 ▲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관람 ▲ 북항재개발 현장 시찰 등을 진행하며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과 역량, 그리고 쿠바와의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 주재 환영오찬은 오늘(2일) 정오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개최된다. 박형준 시장은 오찬을 직접 주재하며 쿠바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과 부산시와 쿠바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과 문화·관광·신재생에너지·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환영오찬에는 쿠바상공회의소와 2017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장인화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영오찬 이후 이들은 엑스더스카이 전망대로 이동해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해운대 전경을 관람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의 주요 정책 현장인 '북항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시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을 개최해 중남미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부산도 이번 쿠바상공회의소 회장의 방문을 계기로 쿠바와 더욱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영양군, MOU체결 2차 계절근로자 입국

여타 지자체보다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에 선제적 대응하는 영양군-오도창 군수, '계절근로자사업 더욱 확대, 일손부족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최선'

영양군은 지난 4월 MOU체결 1차 방식으로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90명이 입국한 데 이어 2일(금), MOU체결 2차로 베트남에서 198명의 근로자가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에 입국한 1차 MOU 계절근로자가 C-4 비자로 들어와 90일 동안 체류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는 E-8 비자로 입국하여 5개월 동안 농가에 배치되어 부족한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앞으로 6월 중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고추, 상추, 과수 등 다양한 농가에 고용되어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창 수확 중인 상추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

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절근로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일손부족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년 가파르게 인상하던 인건비가 지난해부터 확대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인해 안정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대규모 인력 도입을 통해 매년 반복된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에는 MOU 방식으론 1, 2차 288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방식 117명이 입국하여 6월 2일 현재 총 40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33농가에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8월 초 MOU 방식 3차로 250여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하면 올해만 65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게 된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자원봉사로 주민 행복·활력 ↑

'행복마을 만들기 청송16호'재능나눔 봉사활동 펼쳐
윤경희 군수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이 더욱 행복한 삶 이끌 계기"되길

청송군은 자원봉사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청송읍 교리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복지의 손길에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을 활력 넘치는 마을로 만들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한국자유총연맹청송군지회, 꽃길봉사단, 재봉전문봉사단, 청송라온색소폰양상블, 교리새마을부녀회, 청년연구소, 선광당 등 7개 단

체 50여명의 봉사자들이 추억사진 촬영, 리마인드 웨딩촬영, 맞춤 돋보기 지원, 일회용품 줄이기 교육, 손마사지, 건강 체조 교실, 네일아트, 세탁 지원, 수제 사과빵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재능나눔을 실천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행복청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행복향촌에 활력 불어 넣는 '신나는 터링' 프로그램 개강

컬링, 비석치기, 볼링 접목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집중력
근력향상에 큰 도움

경주시는 지난 1일, 행복향촌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터링(terraing) 프로그램을 황오동 사랑채에서 개강했다.

터링은 선조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즐겼던 전통놀이인 어울림 정서에 현대인이 즐기는 볼링과 컬링의 경기방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된 창의성이 높은 펀(fun) 스포츠의 일종이다.

특히 터링은 어르신들의 집중력 향상, 협업능력, 힘 조절방법, 근력강화,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참사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터링 프로그램은 '신나는 터링, 활기찬 일상으로 터링'이라는 테마로 6월부터 9월까지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이순화씨는 "정적인 활동이 많은 일상에 터링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며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터링과 같이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돼 마을에 활력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진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몇 해를 거치며 실효성과 다양성이 가미돼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산시 종합무역사절단,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대성공

경산시는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자카르타)와 베트남(호치민)에서 가진 수출상담회에서 총 127건, 5,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과 현장 계약 체결 19건, 1,200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종합무역사절단은 경산시장을 단장으로 (주)남금속, (주)이화에스알씨, (주)삼화기계, 국제단조, 동우브레이크, 가람오브네이처, 울릉허브, 코리아비앤씨, (주)네이처보타닉스, 메디웨이코리아, 에이아이프론(주)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참여기업들과 함께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시장 진출 방안 모색과 경제교류 협력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기업인 (주)삼화기계와 (주)세명기업의 계열사 제일연마공업(주)의 현지 공장이 위치한 자카르타 근교 찌까랑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베트남에서는 수출관련 유관기관인 경상북도 호치민 사무소와

KOTRA 호치민 무역관을 찾아 현지동향을 청취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 호치민지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지역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동남아 최대 소비재 박람회인 '2023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재전'을 참관하여 참가기업에 아세안 소비재 시장의 동향을 체감하고 현지 수요 정보를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기업의 세일즈맨으로서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체결된 MOU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참가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향후 수출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콕식품박람회(THAIFEX 2023)'에 지역식품 제조기업 6개 사가 참가해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총 150건, 79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이뤄냈다.

송광삼기자

경북도-상인연합회, 전통시장 활성화에 머리 맞댄다

경북상인연합회 워크숍 열어 상호소통
전통시장 정책변화 대응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이철우 경북도지사, “생활인구 시장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더욱 노력”

경북도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김천파크호텔에서 '2023 경상북도 상인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충섭 김천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지역 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비롯해 도내 전통시장 상인과 관계 공무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저성장, 소비침체, 유통환경 변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모색과 상인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화합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전통시장 지원 사업안 내, 전통시장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특강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워크숍과 병행해 '청년 상인들의 전통시장 유입방안'이라는 주제로 행복경영 토론회가 열렸다. 젊은 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상생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

문 감사의 강의를 듣고, 전문위원들과 상인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 및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상인조직 활성화 방안과 마케팅 차별화 전략 특강도 진행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 주차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254억원,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시장 박람회, 우수상품 전시회 등으로 1억7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아울러 공공배달앱 먹개비에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활용해 경산 꿈바우 시장을 시범 입점시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시키고 생활인구의 시장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2023 대만 타이페이 국제 관광 박람회 관광홍보관 성료

‘숲속도시 봉화’ 글로벌 마케팅
박현국 봉화군수, “다양한 관광정책 추진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

봉화군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만 타이페이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타이페이시 정부가 주최하고 타이페이시 여행협회 등이 주관한 이번 관광박람회는 태국, 일본 등 13여 국가, 205개 기업이 참가해 관광트렌드를 공유하고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국제적인 관광 행사로 진행됐다. 봉화군은 '숲속도시 봉화 VISIT 2023-2024' 주제로 곧 다가올 여름 여행 성수기를 겨냥해 여름 대표 축

제인 은어축제를 중심으로 유기, 봉화사과 등 각종 특산품을 전시하고 분천산타마을, 봉화송이축제 등 봉화의 멋과 맛을 알렸다. 또한 SNS 업로드,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숲속도시 봉화'의 매력을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관광홍보관 운영으로 관광봉화 브랜드 위상을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관광정책 추진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안동시, 14개 기업과 지역인재 고용 시 인센티브 지원 협약 맺어

안동지역 대학 출신 인재 채용 시 인센티브 지원으로 청년 정착 유도
권기창 시장, “인재 처우개선과 건설 기업 성장노력, 지방소멸 위기 힘 합치자”



안동시는 지난 2일, 시청 옹부관 소통실에서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참여할 14개 기업과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창 시장을 비롯한 14개 참여기업 대표와 사업 수행기관인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인재 고용과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기획,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2월까지 총 20명

의 지역인재 지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지역 대학 출신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월 최대 16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참여 지역인재에게는 월 3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권기창 시장은 “지역인재를 지역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참여 지역인재의 처우 개선과 건설한 지역기업으로서의 성장 노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합치자”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소방, 태풍·집중호우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 점검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 동화천 찾아 위험요인 확인 및 안전시설물 등 점검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화천(북구 동변동 일원)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4년 불어난 강물로 인해 초등학교 2명이 숨진 동화천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북구청 관계자와 함께 동화천에 설치된 구명환, 안전표지, 자동음성통보시설 등 안전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상태와 자연재난 위해 요인, 유관기관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집

중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활기'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실현, 예천읍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



예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기를 띠고 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주민 주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으로 예천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민이 직접 지역 내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면접 심사를 거쳐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드로잉클럽 모임, 우리꽃연구회 모임 등 최종 10개 팀을 선정했다.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남본리·동본리·노하리·백전리 마을회관을 찾아 실버 힐링교육과 다도 클래스 등 노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로잉클럽 모임은 한복 장신구, 미술 수업 등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꽃연구회 모임은 지역아동센터/경로당을 찾아가 아이들과 어르신 대상으로 치유 원예 교육을 2회차 진행해 주민들의 흥미와 호기심 유발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줬다.

이외에도 예천군 특산물 판매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활동, 정화 식

물을 활용한 예천읍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천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결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다.

정석기 도시과장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도시재생 사업과 예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 실현에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른 무더위 만난 영주 '풍기 인견'...서울에서도 '인기'

제철 맞은 풍기인견, 2~3일 서울페스티벌 성료

흡수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천연 냉감 소재로 만들어진 영주 풍기인견이 이른 무더위를 만나 본격적인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영주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3 영주 풍기인견 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페스티벌 첫날인 2일 오후 7시 30분, 패션쇼를 겸한 개막식에서는 편안한 라운지웨어부터 유행에 맞는 평상복, 가족들이 함께 입을 수 있는 패밀리룩 등 풍기인견으로 개발·제작된 다양한 의상들을 소개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판매 부스에서는 고가의 인견 제품인 의류, 침구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해 인견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이를 내내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뤘다.



또, 전시·체험부스와 인견포토존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풍기인견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박정락 기업지원실장은 "여름에 특히 각광받는 풍기인견 제품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인견으로 만든 의류나 이불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고 풍기인견의 장점을 홍보했다.

한편, 풍기인견은 나무에서 추출한 실로 만든 순수 식물성 자연섬유로 영주지역 대표 특산품이다. 가볍고 시원하며 착용 시 몸에 붙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상쾌한 촉감으로 피부에도 좋아 '냉장고 섬유'라고 불리며 무더운 여름 최고의 소재로 손꼽힌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로 발빠른 행보

울진군은 지난 2일, 울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날 회의는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부군수 주재로 주요 사업 담당 팀장들이 참석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집행계획 및 문제점을 심도있게 토의했으며,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 3,016억원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신속집행은 연말 예산집행 실패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등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군은 주요 사업 진행 현황 및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의 집행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집행을 제고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을 최대한 집행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 및 불필요한 사업 정리,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예산편성 기준을 강화하여 향후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제위기 극복, 그 첫걸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윤태열 울진부군수, "계획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총력 당부"

대형 사업들로 업무량이 많아 신속집행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임을 강조하며 "계획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아동문학 노벨상 타고 영덕은 선녀님'

가족뮤지컬계 랭킹 1위 <장수탕선녀님> 영덕 상륙!



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2년 기준 가족뮤지컬 연간 판매 랭킹 1위인 '초통령' 백희나 작가 원작 뮤지컬 <장수탕선녀님>을 6월 10일에 개

최한다고 밝혔다.

역시 초절정 인기를 누리고 있는 뮤지컬 <알사탕>에 이은 백희나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다. 뮤지컬 <장수탕선녀님>은 2020년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을 수상한 백희나작가의 베스트셀러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무대는 익숙한 동화 속 젊고 아름다운 선녀 대신 수백 살 먹은 할머니가 뜬금없이 선녀로 등장해서 폭소와 재미를 더하는 설정인데, 무대 세트 또한 원작 그림책 속 오래된 목욕탕'이 그대로 구현된다.

덕지가 장수탕 문을 여는 순간 탈의실, 냉탕, 열탕, 때밀이 침대 등 실제 목욕탕을 옮겨 놓은 듯한 세트가 등장해서 부모 세대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자녀 세대에겐 낯설지

만 흥미로운 마법의 세계를 열어준다.

덕지가 선녀 할머니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신나는 냉탕 놀이와 신비한 모험은 영상, 조망, 특수 효과로 펼쳐지고, 신나고 환상적인 음악이 원작의 따뜻한 감동을 배가시킨다.

공연을 예매한 한 영덕군민은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가족뮤지컬의 레전드 <장수탕선녀님>을 아이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돼서 무척 설렌다."고 기대를 전했다.

가족뮤지컬 <장수탕선녀님>은 24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료는 전석 20,000원, 영덕군민은 15,000원이다. 러닝타임은 60분이며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ydct.org>)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장문화/기자

영주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본격 추진

2일 적극행정위원회 열어 실행계획의결,5개분야 11개 과제 선정
시민 체감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 논의
박남서 영주시장,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

경북 영주시는 2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5개 분야 11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시 적극행정위원회 내·외부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영주시 구현'을 목표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

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11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공무원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감사·소송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정원, 풍성한 황금물결 청보리 수확

초록 물결 뒤로 하고, 오색 백일홍 기약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정원에 많이 방문, 청송에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수확, 7월 초에는 지역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백일홍단지 조성할 계획이며, 청송사과가 노랗고 붉게 익어가는 가을, 청송정원에 백일홍이 만개하면 느낌과 힘이 있는 청정·힐링 휴양명소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정원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싱그러움 초록 물결의 아름다움을, 6월에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었다"며 "앞으로는 오색 빛깔의 백일홍 꽃을 잘 가꿔 가을 길손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니 많이들 방문하셔서 청송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정원산업 모델 제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막

7일까지 순천만가든마켓서 정원산업전·가든쇼 등 풍성

전라남도는 2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오천그린광장 일원에서 정원문화 확산과 고부가가치 정원산업 모델을 제시하는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남성현 산림청장, 소병철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최영태 국립수목원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향우회 등 1만여 명이 이상이 함께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정원 관련 신제품, 신기술, 신상품 전시·판매와 고부가가치 정원산업 제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원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정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

다'를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순천만가든마켓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선 정원식물과 물품을 전시하는 '정원산업전', 정원 작가가 조성한 '코리아가든쇼', 참여업체 물품을 활용한 '테라스정원', 전국 반려식물 키트 관련 업체가 참여·출품한 '반려식물 키트존', '토피어리정원' 등을 선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정원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원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온 힘을 다해 대한민국 정원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쉽게 정원을 찾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권역별 지방정원 9개소(등록 1·조성중 8)와 민간정원 24개소를 지정했으며 정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정책에도 힘쓰고 있다.

또 소쇄원 등 정원 자원이 풍부한 담양에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해안 생태 관광 활성화와 자족형 미래 정원도

시 구현을 위해 2027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박중배기자



생태수도다운 순천의 행보, 대자보 도시 전환으로 탄력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대자보 토크쇼로 대자보 실천 필요성 공감

순천시가 지난 1일 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대한민국 생태교통 전문가를 초빙한 대자보 토크쇼를 성료했다.

대자보 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첫 글자를 딴 말로, 자동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사람 중심의 대자보 생태교통정책'으로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쇼는 시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자보 도시 실천을 다짐하는 시민 퍼포먼스로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 시립대 정석 교수는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라는 주제로, 자동차 운행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대자보 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는데, 이 같은 스마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스마트한 시민들"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지속가능도시연구원 박용남 소장은 '당신의 차와 이혼하세요'라는 주제로, "자동차 중심의 사회에서 녹색 교통 도시로 바뀌는 것은 금연과 비슷하다"라며, 순천형 시클로비아(차없는 거리) 등을 도입해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수도다운 대자보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석 교수는 "결국 핵심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약소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만 이와 같은 제도가 유지·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남원 지역활력타운의 경우 사업 부지 대부분이 시 소유로 되어 있어,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전북에 제2, 제3의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자보 도시 전환은 시장이나 공무원 몇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전문가의 지혜,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대자보 도시 전환을 통해 우리 도시가 대도시를 흉내 내지 않고, 고유성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대자보 도시 전환 토크쇼 개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후 토크쇼에서는 정석 교수와 박용남 소장 이외에도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노종기 위원이 참여해 시의 실정에 맞는 대자보 도시 추진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장 먼저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순천에 대해 정석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대부분이 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려 한다"라며, "순천은 순

이승준기자



전북 남원,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지리산 자락에 전원마을 조성

운봉읍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 약 1만평 규모 전원마을 조성



전라북도 남원 지리산 자락에 복지·문화 기반 시설을 갖춘 전원마을이 조성된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라북도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에서 공동주관한 2023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남원 지리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모델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 및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기반시설을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의제 등 인·허가 특례 등이 지원된다.

공모에 선정된 남원 지리산 지역활력타운은 운봉읍 지리산 자락 해발 600m에 위치한 지리산 허브밸리 산업특구를 활용해 약1만평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220억 원이다.

타운하우스 36호, 단독주택 32호, 타이니하우스 10호 등 총 78호를 조성해 분양 및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에는 실내체육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뒷밭, 공유마당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도는 2024년 본격적인 설계를 시

작으로 2026년 8월까지 모든 시설을 준공하고, 같은해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남원 지역활력타운의 경우 사업 부지 대부분이 시 소유로 되어 있어,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전북에 제2, 제3의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행안부-중기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맞손'

2023년 지역중소기업 혁신 업무협약(MOU) 체결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일 군에 따르면 중남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부와 '지역중소기업 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용 함평 부군수, 행안부 조주현 차관, 중기부 한창섭 차관을 비롯해 14개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부 주관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 및 지역자율형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병용 부군수는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는 물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달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에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주제로 최종 선정됐다.



장흥군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 캠페인 실시

장흥군은 지난 5월 31일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했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는 만큼 잠재적 흡연의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위해 학교 흡연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소년흡연율을 4.5%로 2020년 4.4%에 비해 다소 높아진 상태이다.

장흥군보건소는 이에 따라 금연관련 홍보물품 및 리플렛을 배부함으로써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홍보하는 등 청소년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 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 및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박옥란 장흥군보건소장은 "금연 캠페인을 통해 세계 금연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흡연의 위해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연 캠페인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완도군, 제52회 군민의 날 기념식 성료

신우철 군수 '군민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며 더 큰 도약 이룰 것 약속'

완도군은 지난 5월 31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군민을 비롯한 완도군민의 상과 명예 군민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완도군민의 날'은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1971년 제정됐으며,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소했던 지난 3년과는 달리 성대하게 개최됐다.

기념식은 완도여자중학교 댄스 동아리 '루시드'와 '비어트리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제51회 군민의 상 문화체육 부문 수상자인 목화 정지연 선생의 군민 현장 낭독, 어린이집 원아들의 '완도의 찬가'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민과 함께 치성한 '완도군 변천사'는 과거 완도의 모습부터 최근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물관 유

치,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성공 개최 등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군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행사장인 문화예술의전당 입구에 '청해진 주춧돌부터 해양치유산업 머릿돌까지'라는 주제로 완도의 과거부터 현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전시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군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다.

'완도군민의 상'은 산업·경제 부문에 강혁순 (㈜한일고속 이사가 수상했으며, 명예 군민은 가수 영탁, 노광춘 안성시청 감독), 서중호 (㈜아진산업 대

표 이사, 정연우 제8539부대 제2대대장이 선정돼 명예 군민증을 수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념사에서 먼저 "우리 군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웰니스 관광 도시 건설,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물관 유치 등은 군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이룬 결실이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이 완도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면서 "완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도내 청년 창업 활성화 생태계 구축에 힘모으자”

전북도, 한국창업교육협의회·도내 대학들과 혁신포럼 개최

전북도가 세계적 청년창업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도내 대학 등과 함께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사)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창업교육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일부터 3일까지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지난 '22년 정부 인수의 국정과제'로 '대학 중심의 창업생태계 구축'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창업 허브로서 도내 대학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은 전라북도도와 한국창업교육협의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광주광역시 주최하며,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광주대학교 등 81개

창업지역선도 대학들이 참여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포럼으로 꾸러졌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대학, 정부, 기업 등의 참여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공동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투자 네트워크 마련과 창업기반 구축,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1조원 펀드 조성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교육협의회 고혁진 회장은 “창업교육협의회 고혁진 회장은 기초강연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의 가속화에 따라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대학이 ‘글로벌 창업인재

의 양성기지로써 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 포럼 1일차에는 개회식과 함께 25개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글로벌 창업인재 공동육성에 관한 업무협약(MOU)과 더불어 기초강연과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2일차에는 '지역가치창업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지역가치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편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대학들이 창업 공간·장비 지원,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에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남출/기자



강진군,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모집

“학원, 어린이집, 음식점 등 제조서비스업 연중 접수”



강진군은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한 '다자녀 행복카드' 참여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 대상 가맹점은 학원과 병의원,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등 모든 제조·서비스업으로 연중 접수 모집한다.

가맹업체는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홈페이지 업체 현황 게시, 인증

스티커 부착 및 해당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며, 가맹점은 다자녀 행복카드 사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맹점 등록을 원할 경우,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강진군보건소에 방문보건팀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됐으면 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는 도내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 가까운 농협(지역농협 포함)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학원비 10%, 농협하나로마트 5%, CGV-롯데시네마 건당 1,500원, 예스24·교보문고 등 서적 3%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3% ~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신청 및 카드 할인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윤호/기자

화순군, 고인돌축제 추진 유공자 표창

'2023 화순고인돌축제' 성공 추진에 공헌한 민간인 표창

화순군이 1일 정례 조회에서 '2023 화순고인돌축제'의 성공 개최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선발하여 표창했다.

이번 축제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준 단체 3개소(화순군 가족센터,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도곡 방울토마토 공선회)에는 감사패를, 민간인 9명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했다.(민간인 표창 수여자 9명 : 정성덕 대한적십자사 화순지구협의회장, 정중군 테마파크 소풍 대표, 조보익 주암조경 대표, 최삼채 산림사업 유공

자, 박인숙 화순 다육 연합회장, 윤예주 화순 야생화협회장, 심혜순 춘양면 부녀회 회장, 김용희 도곡면 청년회 회원, 손홍규 이서면 연영회장)

또한 이날 조회에서는 특별한 공적을 세운 공직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환경과 소속의 임성호 공무원직원으로, 지난 5월 17일 한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화재 발생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화재진화에 성공,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큰 공로를 세

웠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축제는 화순군과 군민이 협력하여 만든 불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작품이었다”라며 “성대한 축제를 위해 몰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단체와 개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8회째를 맞은 직원 5분 발표는 △다문화가족 △신규직원 업무 적응기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직원들과 경험을 공유했다.

윤경호/기자

남원시, 내수면 상생 위한 쏘가리 치어방류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월 2일 남원을 대표하는 주철인 요천에 남원시내수면어업계 회원들과 함께 쏘가리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남원시 관내 양식장에서 질병없이 생산된 우량하고 건강한 종자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 안전센터에서 전염병검사를 거친 전장 3cm 이상의 쏘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쏘가리는 농어목 꺾지과의 육식성 민물고기지만 가시가 적어 먹기 편하고 맛이 돼지고기처럼 좋다고 하여 수둔(水豚)이라 불리기도 하며 '맛잉어'라는 별칭도 있을 만큼 식감이 쫄깃하고 담백해 '민물의 제왕'으로 불린다.

이런 인기 때문에 한때 멸종위기를 맞았던 쏘가리는 지속적인 치어방류로 점점 복원되고 있는 중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금어기

이며, 18cm 이하의 어린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남원시내수면어업계 회원은 “이번 방류사업으로 관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어업인의 생계와 요천의 수생태계 복원 및 어족자원 보호가 균형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금어기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신안군, 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 개최

위기 청소년 발굴과 구조를 위한 지역사회 관심 고취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1일 신안군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간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발견·구조, 복지·보호, 의료·법률, 상담·멘토 등 4개 분야 3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에게 격려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신안군 1388 청소년지원단 활동 방향 및 다양한 위기 청소년 발굴 방안 등에 논의하고, 청소년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1388청소년지원단 필요성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단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학교폭력, 자살·자해, 가출 등의 위기 청소년의 증가 추세로 1388청소년지원단원들의 많은

관심과 활동 부탁드린다. 센터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또래 관계, 진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교폭력, 자살·자해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진/기자

정읍시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개관 ‘생태관광 명소 발돋움’

국가생태관광지역 월영습지와 솔티숲 인근에 조성·생태관광 연결 기능 수행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인근에 조성된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방문자센터)가 2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전북도의원과 정읍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순서는 유공자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월영습지는 월영산 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과거 화전민의 농경지로 사용됐던 폐경지가 50여년간 방치되면서 습지로 천이(遷移)돼 습지로 복원된 곳이다. 특히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크다.

송죽마을 주민들이 가꾸고 운영하는 솔티숲은 과거에 내장산 국



립공원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아름다운 원시 숲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깃대종인 비단벌레와 진노랑사슴과 같은 멸종위기종과 733종의 자생 식물이 서식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가치를 인정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다.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는 생태관광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있어 각종 생태관광 활동의

연결 기능을 담당한다. 또 방문자들에게 즐거운 체험과 교육 기회, 고즈넉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실, 휴게실, 상품판매실 등을 갖췄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방문객이 풍부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구례군, 어린이 흡연 예방 캐릭터 뮤지컬 공연 개최

신나는 춤과 노래로 흡연예방 메시지 전달

전남 구례군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2일간) 섬진아트홀에서 관내 미취학아동 및 초등저학년(1~3학년) 45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흡연 예방 캐릭터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흡연 예방 창작 캐

릭터 뮤지컬과 화려한 레이저쇼 및 마술쇼로 구성했다. 흡연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한편 신나는 춤과 노래로 흡연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더불어 금연 선포식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평생 금연 파수꾼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담배를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책임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경북교육청, 여름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집중호우·태풍에 대비한
학교 구성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임종식 교육감,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교육가족 안전을 최우선 확보에 총력”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6일(금)까지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에 이어 오는 6월 23일(금)까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북도내 전 교육기관은 도교육청의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며 여름철 재해취약시설을 비롯해 최근 학교 내 강당 내부 마감재 탈락 사고와 관련해 체육관·강당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 위험 ▲붕괴 위험 ▲사고 위험 ▲휴교 및 폐교 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관리주체인 기관 자체 1차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발생한 시설물은 관리·감독 기관에서 2차로 합동(확인) 점검

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점검자가 즉시 시정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와 사후관리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교육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지질탐험대 인증으로 꿈을 키우다

청송교육지원청, 청송지질탐험대 업무 담당자 협의회 실시

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목), 청송교육 특색사업인 청송지질탐험대(도전! 꿈성취 교육장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초·중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송지질탐험대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24개소에 대해 관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탐방 계획을 수립하고 성취해가는 방식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지질명소 12곳 중 방문 개수에 따라 뱃지(6곳), 은장(9곳), 금장(12곳) 3단계로 학교장이 매월 수여하며 그랜드슬

램 메달은 교육장이 년 단위로 수여하고 있다. 작년에는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장부터 그랜드슬램까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호경 교육장은 “교육장 인증제로 시작된 청송지질탐험대 프로그램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한 단계씩 인증을 받으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증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태백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방문 주요현안 적극 청취

전태영 교육장,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진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영주교육지원청은 지역 초등학교 16개교, 76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금)부터 오는 29일(목)까지

‘찾아가는 전환기 전문직업인 진로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진로교육은 미래사회 직

업탐색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학생의 선호도와 선택에 따라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 유망직업과 감성 소통 직업을 알아보고 직업적 가치관을 통한 공감·소통·감성 등의 인성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1인 미디어, 스마트팜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가상현실, 로봇 공학 등의 4차 산업 유망직업과 드로잉 아티스트, 반려동물 전문가, 방송인 등 감성 소통 직업 분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션을 통한 실습 위주의 다양한 직업 체험으로 진행된다.

전문직업인 체험교실 강사로는 4차 산업 관련 직업인, 감성 소통 직업인, 대학교수 등으로 각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교육은 각 직업별 개념과 직업 선택을 위한 과정, 기초실습, 주

제와 난이도에 따른 그룹별 미션 수행, 멘토링을 통한 진로 탐색 과정을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도적인 직업 생활 방향을 모색하고 직업체험으로 문제해결력, 협동심,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피드백하고 교육 결과 환류를 통한 발전적 대응 자료로 활용하여 내년 교육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태영 교육장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적 역량과 함께 배려, 소통, 공감 등 인성적 역량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진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교육지원청, 교육홍보 강화 위한 맘카페와 업무협약

박재식 교육장 “맘카페와 각종 정보
공유해 행복한 영덕교육 실현에 최선”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지역 맘카페(대표 최보람)와 각종 교육시책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맘카페는 영덕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과 영덕교육 홍보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하고, 행복한 영덕교육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박재식 교육장은 “지역 맘카페와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영덕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림원 석학을 만나다 ‘한림원 안중현 교수 초청 특강’



안동고등학교는 지난 2일(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비마학생관에서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을 개최하여 과학 강연과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안동고등학교 재학생 대부분이 이공계열에 높은 관심과 진로 희망을 가진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한림원에 직접 연락을 취해 성사되었다. 강연자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 정회원인 안중현 연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전자공학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특강과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져서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은 한림원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으로 일선 학교에서

김태동 안동고 교장, “향후 외부 전문가 초빙, 학생들 건문 확대 기회 자주 마련”

한림원으로 강연을 신청하면, 한림원 석학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강연하고 진로에 대해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안동고등학교 김태동 교장은 “우리나라 이공계열의 최고 석학 중 한 분인 안중현 교수를 모시고 아주 유익한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자주 모시고 학생들의 건문을 넓힐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목), 08:40부터 17:30까지 도내 137개 학교 및 6개 학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경북교육청이 시행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재학생 16,748명, 졸업생 892명, 총 17,640명이 응시(전년 대비 637명 감소)한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수능 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보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2024학년도 대학

도내 137개 학교 및 6개 학원에서 17,000여 명 응시
임종식 교육감, “모의평가 올 수능 경향과
본인의 학업 정도를 파악 기회될 것”

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시험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문·이과 통합형을 기본으로 하는 올해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시행됐으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

대평가로 치러졌다.

수험생들은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6월 28일(수)부터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리시험실에서의 현장 응시’·‘문답지 수령 후 자택 응시’·‘온

라인 응시’ 세 가지 방법으로 시행했으며, 특히 졸업생 확진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시험장을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설치해 운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의 올해 수능의 경향과 본인의 학업 정도를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도내 모든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에서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을 위한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 착수

올해 시범 서비스로 약100명 및 내년부터 연(年) 500명 이상 칩 제작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과 현판식 등을 개최하며, '차별화된 반도체 설계 인재양성을 위한 설계검증 서비스'의 본격 착수를 알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전 부처가 인재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생·대학생은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자신이 설계한 칩(Chip)을 제작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학생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의 제작을 신청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서울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반도체 팹(Fab)에서 500nm CMOS(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칩이 제작되고 패키징되어 설계를 수행한 학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칩(Chip)이 설계한 대로 동작하는지 직접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반도체 설계를 공부하는 학부생을 위한 칩 제작 기회는 사실상 없었다.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도 주로 상용 파운드리에서 칩 제작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싼 가격과 오랜 대기시간, 부족한 피드백 등의 한계가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칩 제작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한, 전문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피디케이(PDK, Process Design Kits)는 설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로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그러나 피디케이(PDK)는 비밀유지계약

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학부생들에게 제공되기 어렵고 수업에서도 사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는 국내 공공 팹(Fab)을 활용하여 학부생·대학생에게 무료로 신속하게 칩을 제작해주고, 관련 사항을 빠르게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본 사업이 실천 역량을 갖춘 설계 인재를 양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 모델이어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을 위한 반도체 설계 검증 서비스는 지난달 5월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됐으며, 서비스 준비를 거쳐 올해 4/4분기에 시범 서비스를 1회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24년부터 27년까지 4년 간 매년 6~12회 이상의 설계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매년 500~1,000명 이상의 설계 전공 학생들이 칩 제작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과 차별화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동 사업이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이를 통해 뛰어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실시하는 설계검증 시범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 학생 및 교수들은 국가나 노인프라협체에 문의하면 된다.

최광수/기자

충북도, '중심에서는 충북'위해서울시와협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특강 및 서울시와 교류협력 MOU 체결

충북도는 6월 2일 오픈아카데미 장동병이 배움터(장터)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청, 도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북 방문은 지역 혁신을 위해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흡수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김영환 도지사의 특별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오 시장의 철학과 의지,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강에 이어 충북도와 서울시의

지역 상생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식도 진행됐다.

주요 협력사업은 △못난이 김치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산업육성 혁신기관 간 상생협력 △바이오·의료산업 혁신 클러스터 간 연계 협력 강화 △오송화학품뷰티산업 엑스포 성공 개최 협력 △지역관광 안테나숍 조성·운영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중원역사문화권

공동 연구·학술대회 추진 △복지 관련 교육·컨설팅 전문인력풀 교류 등이다.

한편, 충북도 발전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향사랑기부금 전달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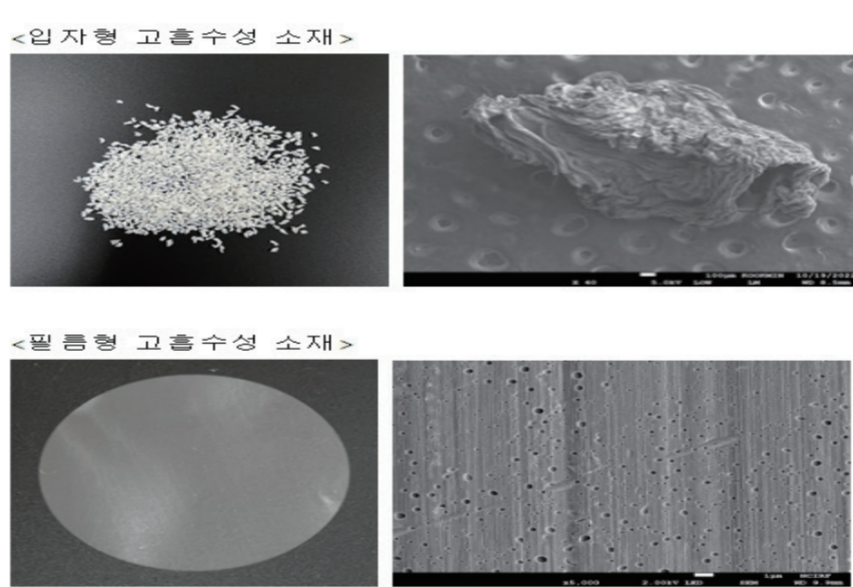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 양 지자체가 뜻을 함께하고 지혜를 모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서 초광역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산림청, 목재로 만든 친환경 고효율수성 소재 개발 원천기술 확보

상용 고효율수성 수지보다 성능이 우수한 펄프 기반 고효율수성 소재 기술 특허 출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기존 석유화학원료 기반 상용 고효율수성 수지(SAP)보다 흡수력이 최대 4배 높고 생분해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이로운 '목재 펄프 기반 친환경 고효율수성 소재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태주 박사는 "해당 특허는 목재 펄프를 흡수에 적합한 다공성 구조로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목재 펄프 기반 원료 소재 1g당 최대 800g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친환경 고효율수성 소재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출원번호10-2023-0062777)."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는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애견패드 및 신선제품 포장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 처리 시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재활용 및 폐기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이태주 박사는 "해당 원천기술을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급 기술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라며, "최근 그린슈머의 증가와 함께 친환경 소재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국민 생활에 안전한 목재 기반 친환경 소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남원시 희망저축계좌 I 신규모집

희망저축계좌 I

신청기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3차 (6월)</p> <p>23년 6월 1일(목) ~ 6월 13일(화)</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4차 (8월)</p> <p>23년 8월 1일(화) ~ 8월 11일(금)</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5차 (10월)</p> <p>23년 10월 2일(월) ~ 10월 12일(목)</p> <p style="font-size: small;">※1,2차(2,4월)는 모집완료!</p> </div> </div>
신청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지원
3년 가입시 본인 저축액 (최소 360만 원)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5px;">+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5px;">이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5px;">= 1,440만 원 + α</div> </div>
지원조건	생계·의료 탈수급

남원시는 6월 1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 수급가구의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I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 I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까지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총 1,44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기지급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 및 사업활동을 지속해야하며, 본인적립금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전액지원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가 등록되어있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 I의 추후 모집일정은 8월,10월에 추가모집 예정에 있으며, 희망저축계좌II(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모집일정은 8월에 예정되어 있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희망저축계좌 I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가구가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많이 신청하셔서 3년 뒤 탈수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충남도, '21년 우정' 재확인하고 수소포럼 초청

김태흠 지사, 1일 도청서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주지사 접견

충남도가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 21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재확인하고, 오는 10월 개최하는 수소국제포럼 초청장을 전달하며 행사 성공 개최 발판을 다졌다.

김태흠 지사는 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자매결연 단체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마렉 워즈니악 주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마렉 주지사가 2013년 도청 개청식에 직접 참석해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폴란드가 25조 원어치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등 양국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라며 "충남과 비엘코폴스카주의 우호 협력이 양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인류가 맞닥드린 기후위기도 미리 대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에너지 전환과 수소 에너지 분야에 대해 양 지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마렉 주지사에게 수소 국제포럼 초청장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프랑세스 아담슨 남호주주 주총독을 만난 자리에서도 수소 국제포럼 초청장을 전달한 바 있다.

수소국제포럼은 오는 10월 26~27일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수소에너지의 메카, 충청남도'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마렉 주지사는 세종시를 먼저 찾아 홍보관과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시찰하며 세종 스마트시티 운영 상황을 들었다.

1일 김 지사 접견 전에는 당진 한국동서발전과 서산 대산그린에너지를 잇따라 방문, 충남의 에너지산업

폴란드 서쪽 내륙에 위치한 비엘코폴스카주는 충남의 3.6배인 2만 9800km²의 크기에 인구는 340만 명



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상황을 살폈다.

마렉 주지사는 2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간담회, 서울 여의도 금융지구 및 한류 문화거리 방문 등을 진행한 뒤 방한 사흘째인 3일 출국한다.

최정근/기자

(2019년 기준)에 달한다.

도와 비엘코폴스카주는 지난 2002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상호 공연단 순회공연과 과학기술 교류, 행사 참가 등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정근/기자

영등포구, '어르신과의 따뜻한 동행' 5개월 대장정 마무리...현장소통행정으로 생활자치 모범보여

영등포구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모든 경로당 170개소를 찾아 어르신과 소통하는 '어르신과의 따뜻한 동행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형식적인 신년인사 사회 대신 지난 5개월간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을 직접 점검하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구는 이번 소통을 통해 난방비·운영비 지원 현실화, 중식·청소 도우미 지원, 노후 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활성화 등 경로당 운영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확인했으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인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구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영등포형 경로당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영등포형 경로당 종합계획'에서는 ▲권역별 어르신 여가 활동공간 확충 ▲경로당 운영 지원 현실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경로당 환경 개선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 등 경로당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룬다.

더 나아가 오래된 경로당 이미지를 벗고, 초고령화 시대 '요즘 어르신들'에 걸맞은 '영등포형 스마트 실버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개념 경로당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구는 '영등포형 경로당' 시범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후

지난 5개월간 경로당 170개소 찾아 어르신들과의 만남·소통 시간 가져

정부와 서울시에 '영등포형 경로당' 모델을 제시, 영등포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르신을 위한 여가문화 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전체 경로당 어르신 현장 소통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의 발판을 마련한 것에 이어, 교육 현장 속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공감 스쿨데이' 추진으로 소통 행보를 강화한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수립은 물론,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원리 체험교실, 국립과천과학관 탐방 등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 명품 교육도시로 발돋움한다.

향후에는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어린이집 소통담회'를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경로당 운영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어르신 복지 향상, 미래 교육 방향 모색, 보육환경 개선 등에 대해 구민 중심의 현장 소통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찾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은평구,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한다... 지문 등록, 위치추적기 대여 등

지문사전등록, 배회인식표 제공, 위치추적기 대여, 배회감지서비스 등 무료 제공

서울 은평구가 매년 늘어나는 치매 환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의 배회로 인한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속한 발견,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실종 예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찰청 지문사전등록, 배회인식표 제공, 손목시계형 위치추적기 대여, 치매체크 어플 배회감지 서비스 안내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은평구 치매안심센터로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또는 중복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은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은평경찰서와 연계해 은

평구치매안심센터로 경찰관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전상담과 지문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구는 실종예방서비스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고 캠페인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치매어르신 모 보호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배회 증상이 있어 늘 걱정이었는데 직접 지문 등록을 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예방 서비스를 통해 환자 가족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줄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은평경찰서 등 다양한 관내 기관과의 협업하며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식기자

성북구 월곡1동, 아이와 부모가 함께 '추억 한 컷, 캠핑스토리'

지역 복지기관의 협조로 대상 가구 선정

성북구 월곡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달 31일 '추억 한 컷, 캠핑스토리' 행사를 진행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캠핑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해 도봉구 소재 무수아취에서 월곡1동 캠핑 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5일 월곡1동 하루차집으로 마련한 수익금으로 진행했다.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캠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10가구 23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대상은 지역 복지기관의 협조로 선정됐다.

이날 캠핑장 인근 산책과 주변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일일 미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바비큐 파티를 열어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가족들만의 캠핑 체험 공간을 제공해 부모와 자녀가 편안하게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

는 자리도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하나같이 "이번 캠핑 체험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월곡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복자 위원장은 "밝고 화창한 날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주고 싶었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병철 월곡1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님들과 아이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께 소중한 추억을 전해드릴 수 있는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송파구, 2023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

행안부 주관 평가서 기관 부문 최고 훈격 표창 수상...송파구 재난관리 선도 도시 인정받아



송파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국가재난관리 유공' 평가에서 기관 부문 최고 훈격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안전도시 위상을 대

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023 국가재난관리 유공'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재난관리에 중사하는 국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의 재

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역량을 평가하는 정부포상으로, 3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 마련,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으로 중대재해 사고 예방,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 중대시민재해 대상 위탁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화재 예방 및 피난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압사, 전도,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소화기 등 안전행사를 실시한 점을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송파구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례'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으로 사업장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우수함을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대규모 공연 방역지침 준수 점검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초·중·고 건축물(롯데타워)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안전분야 전수점검 실시 및 카타르 월드컵 한국전 대비 밀집지역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순찰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현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것은 물론 폭염, 한파 상황을 관리하는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안전 행정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서울 중구,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문제해결방안 중점제시, 다음 감염병에 더 잘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

서울 중구가 5월 31일 '중구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중구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시행착오를 기록으로 남겨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더 잘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을 남기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백서 제작 전담 추진단(단장: 김정호 부구청장)을 꾸려 제작에 착수했다.

백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개관, 제2장 신속한 대응과 관리, 제3장 예방접종, 제4장 방역 대책, 제5장 재난지원, 제6장 부록(평가 및 제언, 체험수기 등) 순이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여간 중구의 첫 환자 발생부터 팬데믹을 지나 상시 감시체계 전환 준비까지 중구청과 보건소 26개 부서의 코로나19 전 대응 과정이 300페이지에 걸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해 향후 신

종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전국 시·군·구 및 관련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구청 누리집에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구는 2020년 12월 14일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 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 전국 방역의 주요 관문인 이곳에서만 570,864건의 검사가 이뤄져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는 2023년 5월 31일 오후 7시 875일의 임무를 끝내고 문을 닫았다. 김길

계속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백서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난 3년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바이러스와 싸웠던 중구



성 중구청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문을 닫지만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및 공휴일 09:00~18:00, 주말에는 09:00~13:00 운영을

직원들과 중구민 모두의 피, 땀, 눈물이 보인다"며, "이 상세한 기록이 향후 발생할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서울시, 소규모 퀵서비스건물관리사업장대상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실시

산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0곳 대상,
인력·예산부족 사업장 집중 지원



위험성평가의 어려움!
안전보건지킴이가 도와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쉽고 간편하게 알려줄게!

- 대상** 서울소제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및 건물종합관리업 총 100개소 ※신청은 무료
-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제출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제출처** jeun111@seoul.go.kr
- 문의처** 02-2133-5590
- 컨설팅 절차** 접수신청 → 방문 컨설팅 (총 2회) → 위험성평가

서울시가 위촉한 안전보건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 (총 2회)

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개선방안도 제안한다.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인자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천 등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서울시는 50인 미만 취약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사항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장 스스로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무가 강해지고 있다며,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우선 위험요인 및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서울지역 이륜차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4명이었으며, 이 중 11명(78%)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관리업 사망자도 지난 5년간 총 42명으로 주요인은 떨어짐 또는 넘어짐 사고였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 2회 이상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퀵서비스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륜차 차량 미점검으로 인한 사고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건물관리업'은 기계식 주차설비 작업이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추락을 비롯해 밀폐공간 작업 질식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 파악을 지원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소제의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 및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퀵서비스 건물관리업을 시작으로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컨설팅 업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 "베이벨리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만들 것"

김태흠 지사, 아산 방문...
"큰 그림 그리고 하나하나 채워 가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을 통해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는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아홉 번째 일정으로 아산을 방문, 차량용 반도체 종합 지원센터 건립 정책 현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등을 진행했다. 언론인 간담회 등을 통해 김 지사는 "아산은 충남의 중추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도시"라며 "우리나라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선8기 핵심 과제인 베이벨리 메가시티를 꺼내들며 "미래 최첨단 산업은 아산만 일대에서 이끌어 나가고,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충남과 경기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권이 되며,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채워 나가겠다"라며 올가을 경기도와의 논의를 통해 세부 사업을 1차적으로 선정·공개할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민선8기 핵심 과제다. 김 지사는 또 국립경향병원 분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병원을 아산에 설치하는 것은 이미 확정됐고, 현재는 규모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때 도의 입장에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산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순철비용이 많이 소요돼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아산시 용역 결과를 보고, 도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전했다. 아산시의 문화예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도 도시 품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거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거창군은 2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중간보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반영해 최종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거창군의 영유아 양육과 보육여건의 전반적인 현황, 입지분석, 운영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운영방안에서는 중간보고회의 보충적 내용을 담아 △부모·자녀 휴식과 발달 지원서비스 △다양한 가족유형의 맞춤형 공간과 가정양육지원사업 제공 △접근성과 이용자 맞춤형 공간구성 △거창형 공공의료타운 조성사업 연계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군은 최종보고회를 통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연계 및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현재 우리 군도 인구소멸의 위기를 비껴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군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인구감소를 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으며 도내 10개 군 중에서 두 번째 6만 인구를 사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산과 인구소멸위기 대응 방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다면 거창군 영유아 육아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전시, Chat GPT 활용 교육으로 혁신행정 기반 마련

시 공무원 등 대상 'Chat GPT 업무활용법' 주제로 특강 개최... 400여 명 참석

대전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Chat GPT 업무활용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해 12월 미국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공개한 Chat GP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고우영 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특강에서는 Chat GPT 소개 및 사용법, 악용사례 및 보안관련 대처방안,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Chat GPT를 활용법 등 다양한 혁신

사례를 공유했으며, 400여 명의 공직자 등이 참여하며 Chat GPT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경민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강을 통하여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인구 3만+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Welcome to 봉화!

봉화군에서 함께 살아요!

전입축하금 지원(봉화사랑상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 시 10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2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679-6143) 	전입 청년 주택임차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 49세 청년 전입자 월 10만원씩 최대 3년 지급 · 2023. 4. 17.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679-6143)
가업승계소상공인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 49세 가업승계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679-6188) 	가업승계농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세 미만 가업승계 농업인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 2023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 ※ 문의 : 농업기술과 기획교육팀(☎ 679-6835)

봉화군

인터뷰 공간

박경귀 아산시장 인터뷰



“문화.예술의 도시 아산... 비상(飛上)은 계속될 것”



퍼포먼스 충남 아산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를 아산에서 나왔고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요약하자면 2012년 전)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평가 전문위원과 2013년 전) 국방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장을 역임하였고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충남공천선거대책위원장, 2022년에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의 다수의 중책을 맡은 바 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첨단산업 분야 대개업이 몰려있는 충남 아산시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을 이끄는 도시 중 하나이지만 그에 비해 취약한 문화.예술 인프라는 약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 후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1년간 아산시에서 고품격 문화예술 행사를 펼쳐왔다고 피력하였다.

신정호 주변의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은 아름다운 호수를 중심

으로 모인 민간 갤러리 역할을 했고, 시민을 위해 담장을 허물어 준 경찰인재개발원 공연장에는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공연을 하는 등 내세울 만한 공연장과 미술관이 없던 아산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박 시장은 “도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문화 예술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박탈감과 실망이 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미술관. 공연장이 건립될 때까지 마냥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유보할 수만은 없었다.”라고 말하며 문화예술사업은 지역에서도 고품격 문화예술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찰인재개발원 내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아트밸리 아산오페라 갈라 콘서트는 준비된 1300석이 일찌 감치 매진되고 공연을 주관하는 아산문화재단에는 추가 공연 계획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으며 “여러 공연예술 중에서도 오페라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장르라고 여겨지곤 하는데,

경제산업 도시에 걸맞은 온천. 문화. 예술 접목... '시민 행복 우선'



이번 '오페라 갈라콘서트'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간 고품격 문화 예술에 대해 얼마나 큰 갈증을 느껴왔는지 실감했다.”라고 박 시장은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4월 30일 막 내린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도 대표적인 사례로 아산시립합창단의 칸타타 공연 '난중일기'를 시작으로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선에 진출해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은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퍼포먼스, '스트리트 맨 파이터' 출연팀인 원원리 언과 저스트 걸크의 '학익진 스트리트 댄스', 세계합창올림픽 4관왕에 빛나는 국가대표 쇼과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의 뮤지컬 (이순신) 테마공연 등 오로지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이 쉴 새 없이 진행되었다고 회상하며 그날의 현장을 묘사하였다.

박 시장은 문화 예술 부흥 정책은 아산의 온천산업 재부흥과도 맞닿아 있어 온천과 문화, 예술을 접목

한 독창적 콘셉트의 정책 추진으로 전국 최초 온천 도시 지정에 도전하려 한다고 했으며 아산 온천산업 재도약을 위해 지난해 독일을 시작으로 대만,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온천 도시를 견학하며 발전시키고 다듬으며 확신을 얻은 그의 온천 재부흥 계획 중 하나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아산에 문예회관(예술의 전당)이 건립되기 전까지 경찰인재개발원이 1700석 규모의 내부 대공연장이 차일혁을 개방하기로 하는 등 아산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 경찰인재개발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밸리가 구축할 아산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도시브랜드는 아산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인프라 부족을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하고,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아산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비수도권 소도시에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아산의 아트밸리 전략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은 물론, 온천산업 재부흥과도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신한다. 시민행복과 지역경제발전, 온천산업 재부흥을 위해 '아트밸리 아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춘각을 닦아 일해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말은 바 소임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을 묻자 “쉬는 날이 거의 없지만 잠이 나면 독서를 하는 것이 취미이고 그동안 구상해 온 집필을 틈틈이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아산시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앞으로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공약을 이행하면서 시장께서 추진하는 정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박경귀 시장 저서) 그리스 인문의 향연, 공정이 먼저다, 자유인의 선택, 지하 사용설명서 감추고 싶은 중국의 비밀 35가지, 11인 지성들의 대한민국 진단

김원호기자



www.yyg.go.kr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머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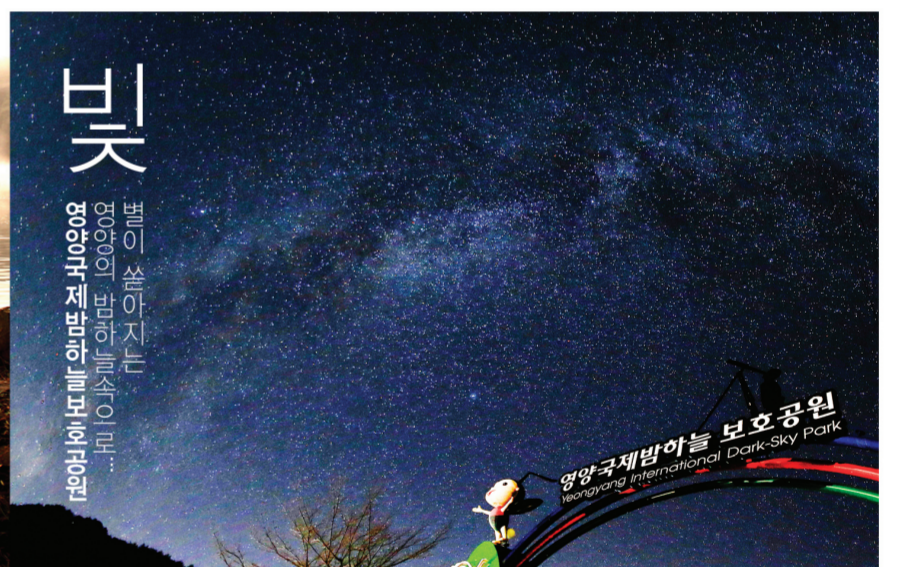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 곳에서
하나도 어둠이 없다...
외씨버전길 8050년 간



물
영양의 제1야경
이랜드야경에 신기...
8050년 5000년 전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속삭이면...
영양이 제 빛을 꺼내줘야만



얼
시문화의 대가
서석지 8050년 전의 정경...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소정



숲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전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